개 회 사

세상의 만물이 향기를 전하는 생명의 절기에 교구와 종단을 위하는 마음으로 교구종회를 함께하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더불어 깊은 원력으로 가람수호와 불법홍포에 진력하시는 직할교구 주지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종단은 신년 회견을 통해 '소통과 화합,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사회에 감동과 희망이 넘치기 위해서는 소통과 화합을 통한 혁신을 기반으로 공존과 상생, 그리고 합심의 기운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가자가 줄어들고 신도 수 또한 답보상태인 현실 속에서, 직할교구의 역할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여느 교구에 비해 수행과 포교를 통한 불법홍포에 진력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종단 백년대계의 중심에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이 있기에, 미래세대를 희망과 용기의 길로 안내하는 등불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가기 위해서, 지역별 주지협의회를 중심으로 포교와 연대사업이 원활해지고 있으며, 연수를 통하여 사찰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의 장 또한 보다 견실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한 승려복지혜택 또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결같은 노력과 직할교구가 진행하는 사업 하나하나가 향

후 중앙과 교구의 균형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아가 사찰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공명한 사찰로 발전하고, 사찰과 신도는 지역사회의 주체가 되어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보듬는 솔선수범에 앞장을 서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담아 초파일 연등회와 더불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와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직할교구 주지스님들의 많은 동참과 지원으로, 종단과 불교가 맺고자 하는 결실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할교구는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사찰과 신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지스님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은 종단 발전에 중요한 반석이라 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역사회와 불교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스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불교가 국민과 소통하고, 사회와 화합하여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스님들의 진력이 국민과 사회의 행복으로 회향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9(2015)년 3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종회의장 자 승